

국가 지식정보체계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회도서관의 역할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in Building the 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and Promoting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곽 승 진 (Seung-Jin Kwak)** 노 영 희 (Younghee Noh)***
장 인 호 (Inho Chang)**** 강 봉 숙 (Bong-Suk Kang)*****
고 재 민 (Jae Min Ko)*****

목 차

- | | |
|-------------------------|-----------------------|
| 1. 서 론 | 5.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의 필요성 |
| 2. 선행연구 | 6. 국회도서관 분관의 기본방향과 목표 |
|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 7. 결론 및 제언 |
| 4. 국가 지식정보강화 측면의 환경분석결과 | |

초 록

본 연구는 국회도서관이 국가도서관 및 의회도서관으로서 국가 지식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지역 분관의 건립 필요성과 운영 목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 환경분석, 수요분석을 기반으로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의 지식정보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저출생,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국회도서관의 지역 분관 건립 필요성이 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별 지식거점 구축 및 확산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국가 문헌자료의 수장 능력 확대 및 분산 소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섯째,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료의 특성과 기반 분산 보존을 통해 재난관리에 대비해야 한다. 여섯째, 국회의원의 정책수립을 위한 서비스 균형 제공이 필요하다. 일곱째, 연구도서관 기능의 확장을 통해 국회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lan for regional branches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to strengthen national knowledge capacity and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literature review, environmental analysis, and demand analysi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regional branches for several reasons. First, strengthening the national knowledge system is essential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AI era. Second, regional branches are needed to address key social issues such as low birth rates, population decline, and regional extinction,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ird, the creation and expansion of regional knowledge hubs are crucial for balanced regional growth. Fourth, the increasing demand for decentralizing national document storage highlights the need for regional branches, as demonstrated by advanced countries operating regional and preservation libraries. Fifth, decentralized preservation of analog and digital resources is vital for disaster preparedness. Sixth, balanced information services for supporting policy development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ust be ensured. Lastly, enhancing the research library function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islative capacity of the National Assembly.

키워드: 국가 지식정보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국회도서관, 역할 강화 방안, 국회분관

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National Assembly Library, Role Enhancement Strategies, National Assembly Library Branches

* 이 연구는 2024년 국회도서관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jkwak@cnu.ac.kr / ISNI 0000 0004 6812 0586)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교신저자)

**** 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oinchang@daejin.ac.kr / ISNI 0000 0004 6108 9280)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bs@jbnu.ac.kr / ISNI 0000 0004 6850 9823) (공동저자)

***** 수원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jmko@suwon.ac.kr / ISNI 0000 0004 6814 7172)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2025년 1월 25일 최초심사일자: 2025년 2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25년 2월 7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1): 33-57, 2025. <http://dx.doi.org/10.4275/KSLIS.2025.59.1.033>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국회도서관은 의회도서관이자 국가도서관, 연구도서관으로서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회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며, 데이터와 지식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서관은 지식의 저장소를 넘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데이터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개인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지식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로 기능하기 위함이다. 도서관은 당대의 지식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정보의 저장고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문화적 성장을 촉진하고 지혜로운 사회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최근 UN과 세계 여러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도서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재정적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도서관이 국가적 지식정보체계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특히 국회도서관 지역 분관 건립은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

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회도서관이 국가도서관 및 의회도서관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지식정보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저출생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여 국회도서관의 역할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 분관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국회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한 분관 설립의 당위성과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 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의 5년간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국가 지식정보체계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분관 설립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분관의 역할과 기능, 운영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또한 본관과 분관 간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분관의 위치 선정 및 적정 규모를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인 분관 건립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국가 지식정보체계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국회도서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향후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으며, 특히 위치와 규모에 대한 분석 자료는 분관 건립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국가 지식정보 역량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서관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을 위해 타당성을 조사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이 2014년에 발행한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국내외 주요 국가도서관의 분관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분관 설립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서혜란 외, 2014). 또한, 2015년에 국회도서관이 발행한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입지 타당성조사에 관한 연구”에서는 분관 건립의 타당성과 입지 선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분관 설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다(국회도서관, 2015). 이 연구에서는 국회도서관이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서 국가 지식정보 역량을 확대하고, 지식과 문화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분관 건립사업의 입지선정과 규모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이를 위해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건립 규모 및 사업비 분석, 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 수집 및 체계적 조사를 통해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사업이 국가 및 지역사회

의 균형적 정보 접근성과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 분관 설립과 관련된 연구로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운영 기본계획수립(이상복 외, 2016), 최첨단 디지털 기술 기반 지능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2분관 건립 방안에 관한 연구(이승민, 고재민, 2020),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부산관) 세부 운영계획 연구(이지연 외, 2018) 등이 있다.

다음으로 국회도서관 역할과 관련하여, 국회도서관은 입법 지원과 정보 제공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주장의 연구가 있다. Çakmak과 Tırnavalı(2020)의 연구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은 의원과 공직자에게 전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도서관의 지방의회 정보서비스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의 특성화 서비스로서 지방의회 정보서비스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배경재, 서유진, 2018). 또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정은희와 차미경(2020)은 의원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지원조직의 정보요구를 바탕으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입법지원조직 소속 이용자 20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서비스 개선분야에서 해외입법사례 정보 요구 및 정책정보의 보완에 대한 요구 그리고 홍보가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였다. 시스템 개선분야에서 외국법률정보를 중심

으로 법률정보시스템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과 입법지원조직마다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서비스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국회도서관 분관은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수행된 연구로, Zhu와 Xie(2022)의 연구에서는 학습 공간의 사용자 요구 조사를 통해, 도서관이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하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서비스 만족도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으며(조찬식, 김원진, 2012),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의 품질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회도서관 서비스 경제적 이용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표순희, 차미경, 2016) 등이 있다.

국회도서관 분관을 라키비움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도 있다. 박옥남과 박희진(2017)은 국회도서관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정보융합시대에 부응하며 국회 및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전시 기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국회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라키비움 운영모델을 기반으로 한 전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내외 의회도서관, 기록관, 복합문화기관, GLAM 프로젝트의 사례를 조사하고, 국회도서관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라키비움 기반 전시·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국회도서관 분관의 운영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Ames와 Lewis(2020)의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접근이 도서관 운영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국회도서관 분관의 설립은 지역 사회의 정보 접근을 향상시키고,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분관의 운영 모델과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정보 요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본 연구는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문헌 조사, 사례 분석, SWOT 분석의 세 가지 방법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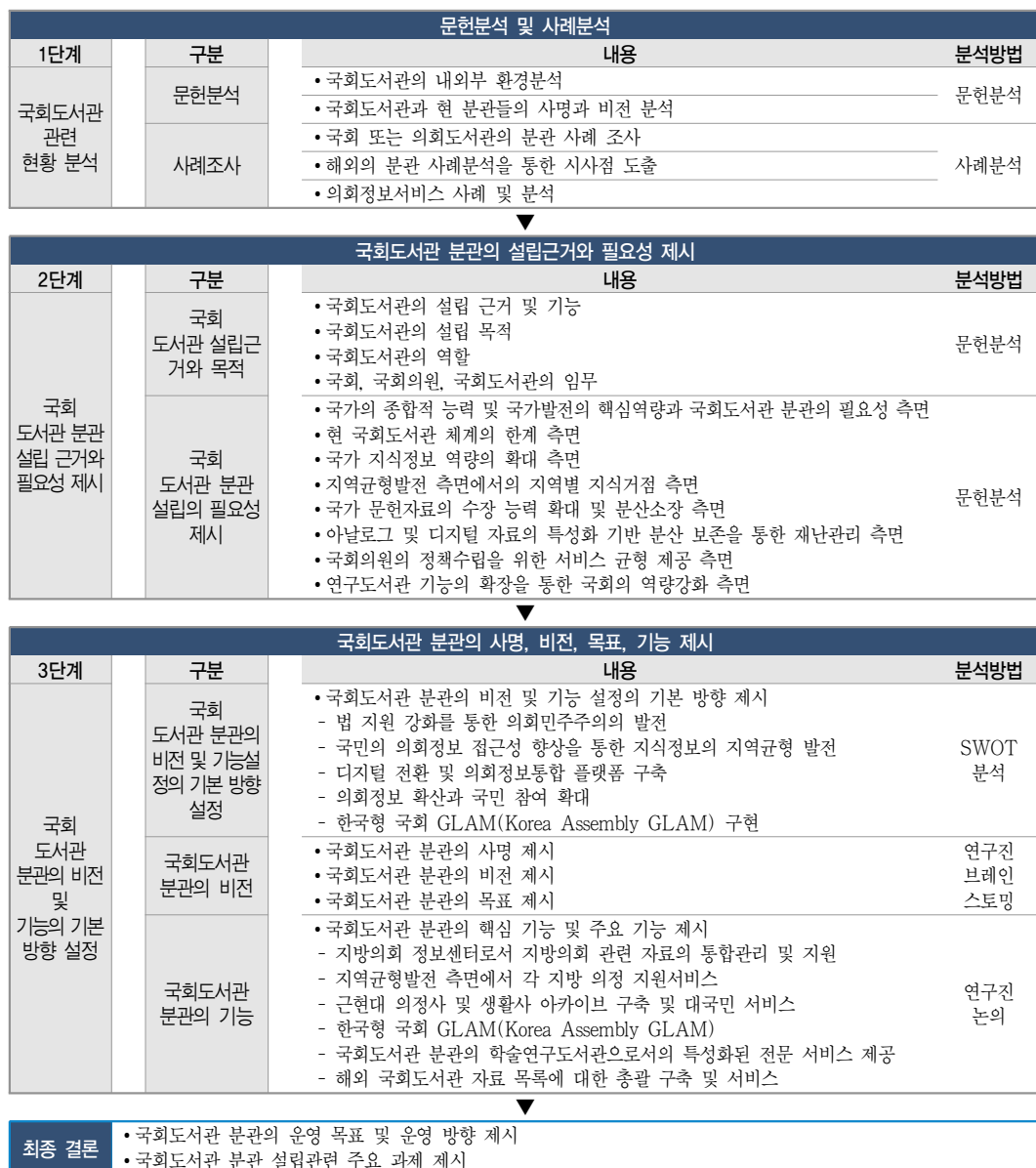
먼저, 문헌 조사를 통해 국회도서관의 내부 환경(자료 증가율, 서고 공간 사용 현황 등)과 외부 환경(이용자 접근성, 국가 지식정보 정책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회도서관의 현재 상황과 서고 공간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였다.

사례 분석에서는 국내외 주요 의회도서관의 분관 운영 사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미국 의회도서관과 영국 의회도서관 등 해외 사례를 통해 분관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운영 방식을 도출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국회도서관 내부 기존 분관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여 설립의 시사점을 확보하였다.

SWOT 분석을 통해 분관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파악하였다. 강점으로는 국회도서관의 전문성과 풍부한 자료 자원, 약점으로는 서고 공간 부족과 접근성의

제한이, 기회로는 디지털 전환 기술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요구가, 위협으로는 예산과 인력 부족 가능성이 도출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분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론을 통해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며 국가 지식정보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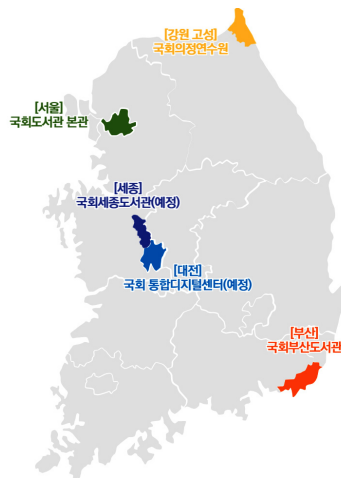


〈그림 1〉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의 필요성 및 운영방향 도출 과정

4. 국가 지식정보강화 측면의 환경분석결과

4.1 국회도서관 분관 현황 분석결과

국회도서관은 국가 지식정보의 중심 기관으로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회부산도서관, 국회세종도서관(건립 예정), 국회 통합디지털센터(건립 예정)와 같은 분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분관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서비스 제공, 국가문헌 분산 보존, 디지털 정보 자원 관리 등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며 국가 지식정보체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한다.



〈그림 2〉 국회도서관 및 관련 시설 분포

4.1.1 국회부산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은 국회의 첫 번째 지역 분관으로, 2022년 3월 부산 강서구에 개관하여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의 정보 격차 해소와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국

회부산도서관은 연면적 13,661.12㎡, 지상 3층 규모의 독립 도서관 건물로, 종합자료실, 주제자료실, 의회자료실, 영상세미나실, 디지털보존실, 보존서고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부산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해양, 항만, 물류 등 지역 산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특화하였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연구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독서문화 및 정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지식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4.1.2 국회세종도서관

국회세종도서관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세종시에 건립될 예정이며, 국회부산도서관에 이은 두 번째 지역 분관으로 계획되고 있다. 국회세종도서관은 국회세종의사당 내에 위치하게 되며,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과 국가문헌의 분산 보존, 지식·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2021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국회도서관 분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현재 국회세종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부지 선정,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국회 의정 활동 지원과 공공 정보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4.1.3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는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고 국회 정보 자원의 통합 관리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전

광역시에 건립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최초의 도심형 복합문화 디지털센터로서, 국회 정보자원 데이터센터, 책 없는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체험·전시관, 시민 의정 연수 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는 연면적 11,811㎡,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설되며, 국회 디지털 정보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책 없는 디지털 도서관(280,38㎡)은 국회 최초로 디지털 자료만 보유한 도서관으로 정보 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지식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4.1.4 국회도서관 분관 현황 분석결과 시사점

국회도서관 분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회부산도서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세종도서관과 국회 통합디지털센터가 건립 예정이다. 이러한 분관 설립은 지역 특화 정보 서비스 제공과 국가문헌 효율적 관리,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호남권 및 제주지역에는 국회도서관 분관 같은 국가적 지식정보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관 설립이 필요하다. 앞으로 국회도서관 분관이 국가적 차원에서 균형 잡힌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4.2 국립도서관 및 관련 기관 지역별 분포 분석

4.2.1 국립도서관 지역별 분포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르면 국립도서관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의미하며, 대통

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2023)에 따르면, 국립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4개로 규정되어 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운영 중이거나 건립 중인 국립도서관은 총 10개로 조사되었으며, 각 도서관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8년 개관 이후 국가 문헌자료의 수집·보존·활용을 담당하고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 또한 서울특별시에 위치하여 각각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정보서비스와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되어 정부기관 지원 및 지역 주민 대상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이다.

강원도 평창군에는 국가문헌보존관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서울 영등포구에 본관을 두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국회부산도서관(2022년 개관)을 운영 중이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도서관(2031년 예정) 건립을 추진 중이다. 대전광역시에는 책 없는 디지털 도서관을 포함한 국회 통합디지털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경기도 고양시에는 2018년에 개관한 법원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국립도서관이 집중되어 있으며, 대전, 세종, 부산, 강원 지역에 국립도서관 및 관련 기관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호남권역 및 제주지역에는 국립도서관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지역 간 정

〈표 1〉 국립도서관별 소재 위치

도서관 명칭	소재 위치(지역)	개관연도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1988
국립세종도서관	세종특별자치시	201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06
국가문헌보존관	강원도 평창군	2027(예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
국회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975
국회부산도서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22
국회세종도서관	세종특별자치시	2031(예정)
국회 통합디지털센터(책 없는 디지털 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정)
법원도서관	경기도 고양시	2018

보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분관 설치 목적이 지역 간 도서관 및 지식문화 균형 발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호남권역에 새로운 국립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 분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는 해당 지역의 지식문화 발전과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호남권에 국립도서관 분관이 설치될 경우, 인근 지역의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및 정보자원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국립도서관 지역별 분포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주시와 포항시에 각각 분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 중이며,

4.2.2 기록물 관련 기관 지역별 분포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주요 기관으로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행정기록관, 국회기록보존소 등이 있으며,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분포하고 있다.

국가기록원과 행정기록관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하여 국가 주요 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여 대통령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라기록관은 경기도 성남시에, 역사기록관은 부산광역시에 위치하여 각각의 특화된 기록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는 국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어 국회 관련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록물 관련 기관은 수도권, 충청

〈표 2〉 기록물 관련 기관별 소재 위치(홈페이지 참조 작성)

기관명	지역별 소재 위치	관련 이미지
국가기록원	대전광역시	
나라기록관	경기도 성남시	
역사기록관	부산광역시	
행정기록관	대전광역시	
국회기록보존소	서울특별시	

〈그림 4〉 기록물 관련기관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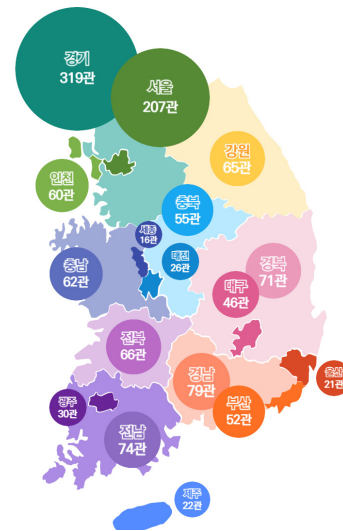
권, 영남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호남권, 강원권, 제주지역에는 기록물 관리 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국가 지식문화 자원의 균형적 분포와 지역 간 정보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에도 기록물 관리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기록물 관리 기관은 도서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지식문화 자산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균형적 설립이 요구된다.

4.2.3 공공도서관 지역별 분포

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총 1,271개의 공공도서관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에게 독서, 교육,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시설로서, 지역사회 지식문화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호남권역에는 총 170개관(광주 30관, 전북 66관, 전남 74관)의 공공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공공도서관의 약 13.3%에 해당한다. 호남권역의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정보자원의 양과 질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 2023). 따라서 국립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 분관이 호남권역에 설립될 경우, 지역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여 정보자원의 교류와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5〉 공공도서관 지역별 분포

특히 국회도서관 분관은 공공도서관과는 차별화된 고급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 내 정보격차 해소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호남권역은 국가적 차원의 지식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주요 대상 지역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4.2.4 국회도서관 대내외 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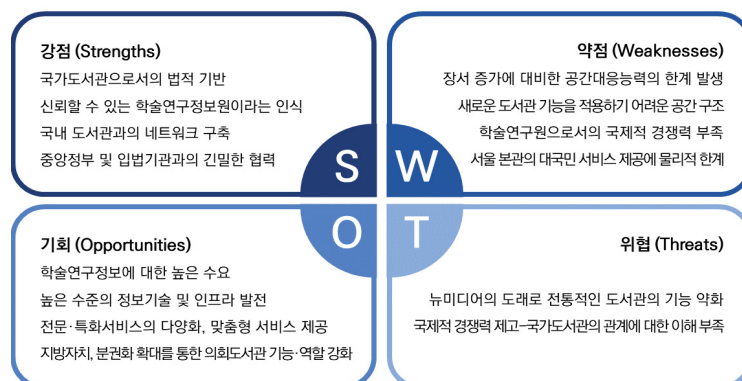
국회도서관은 단순한 정보 제공 기관을 넘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지식정보 자원의 수집, 관리, 활용, 보존을 책임지는 국가적 지식 문화유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보사회로의 급속한 전환과 지식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회도서관은 기존의 기능에 더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국가 지식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서관 기능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도서관 본관이 위치한 서울에 정보서비스 기능이 집중됨에 따라 몇 가지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간 부족과 구조적 한계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본관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가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도권 외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상대

적으로 낮아 지역 간 정보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도서관 분관을 설립하여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관의 물리적 부담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회도서관은 국회 내부 이용자를 위한 전문 정보서비스 제공이라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며, 각 의원의 개별적인 정보 요구는 시점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의원 개개인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 허브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SWOT 분석을 통해 내부 강점과 약점, 외부 기회와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에 대한 SWOT 분석결과이다.



〈그림 6〉 국회도서관 SWOT 분석

4.3 국외 도서관의 대국민 서비스 동향 분석

4.3.1 주요 국가별 도서관 서비스 동향 분석

세계 주요 도서관들은 단순한 자료 제공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중 친화적 서비스와 혁신적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용자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대국민 서비스는 지식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요 국가별 도서관 서비스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 왕립도서관(<https://www.kb.nl/en/about-us>)은 청소년의 자아 탐색과 시민성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 독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Back street’이라는 청소년 전용 자아 탐색 공간을 운영하는데, 이 공간은 방탈출 게임방, 타투샵, 가상 방송국, 카지노, 부서진 리무진 등 다양한 소그룹 활동실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이 활동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사회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가상 방송국 공간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성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주주의와 관련된 도서를 큐레이션하여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https://www.loc.gov>)은 방대한 자료 보유량을 바탕으로 연구·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대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에 대한 온라인 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 전시, 행사 등을 통해 국민과 세계인이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밤에는 라이브 파티

를 개최하고 문학 코스튬 미팅과 같은 독창적인 이벤트를 진행하여 도서관을 단순한 정보 제공 공간이 아닌 문화적 만남의 장으로 자리 매김시키고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https://www.ndl.go.jp>)은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서관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행정부, 사법부, 국민에게도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전반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자료 수집·보존 및 정보자원 제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의회와 국민 간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영국 국립도서관(<https://www.bl.uk>)은 국가장서개발정책과 자료수집정책을 수립·집행하여 세계에서 출판되는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영국 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Knowledge Matters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전략적 비전을 발표하고, 접근성, 참여 및 포용, 도서관 서비스의 현대화, 국내외 문화유산 기관과의 협력 강화, 지속 가능성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 Living Knowledge Network와 같은 파트너십으로 현장 및 온라인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등 전국 단위의 포괄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https://www.bnf.fr>)은 디지털도서관 Gallica를 통해 프랑스 및 협력 기관의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국가 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의회도서관과 협력하여 ‘France in America’라는 디지털 도서관을 운영하며, 북미 지역에 존재하는 프랑스 역사 자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프랑스 미테랑 도서관에서는 mk2 Bibliotheque

를 통해 영화 상영, 시사회, 컨퍼런스룸 대여 등 복합문화 서비스를 운영하여 도서관을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4.3.2 시사점

주요 국가의 도서관 서비스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들 도서관은 단순한 정보 제공 기관의 역할을 넘어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향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 중심의 대중 친화적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도서관은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이용자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 왕립도서관의 'Back street' 서비스나 미국 의회도서관의 라이브 파티, 문학 코스튬 미팅 등은 이용자의 관심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둘째, 혁신적 정보기술의 활용이 도서관 서비스의 현대화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Gallica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정보자원 제공 시스템은 디지털화된 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도서관, AI 기반 맞춤형 큐레이션, 실감형 콘텐츠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도입이 요구된다.

셋째, 상설·기획전시 및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영국 국립도서관의 Living Knowledge Network와 프랑스 미테랑 도서관의 mk2 Bibliotheque 사례에서 보듯이, 도서관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체험과 참여를 유

도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넷째, 전문지식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과 같이 도서관별 특성에 맞는 전문 정보서비스를 일반 대중과 전문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역시 분관 설립 시 지역 특화 자료와 전문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지식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다섯째,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프랑스와 미국 의회도서관의 협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함으로써 자료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정보시스템은 정보자원의 분산을 방지하고, 자료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은 국회도서관이 향후 분관을 설립하거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앞으로 국회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 변화에 발맞추어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지식정보체계의 중심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5.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의 필요성

위에서 문헌분석 및 사례 조사를 통해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은 여러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각도로 국회도서관 분관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5.1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 발전을 위한 지식 정보 역량 제고 측면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 발전을 위한 지식정보 역량 제고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국가 경쟁력은 생산성 향상, 국부 창출, 기업 경쟁력 증진 등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의미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은 2023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40위에서 38위로 상승하였으나, 지식정보 인프라의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력 증대가 필요하다.

국회도서관 분관의 설립은 지식정보 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지식정보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의회와 지역 연구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 전반의 지식정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도서관 분관은 국가의 종합적 능력과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5.2 국가 경쟁력 실현을 위해 현 국회도서관 체계의 한계

국가 경쟁력 실현을 위해 현 국회도서관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도서관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도서관계와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물리적 기관 중심 서비스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의 정보 요구는 단순히 콘텐츠 제공을 넘어, 단위 정보 데이터에 대한 요구로 확대

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도서관의 운영 방향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국회도서관의 핵심 기능인 대국민 서비스, 연구지원 서비스, 국회 입법지원 서비스 등 전반적인 운영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회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중심 전환을 완전히 추진하는 것은 국회도서관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기존 운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진화하는 정보환경에 맞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도서관의 고유한 임무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도서관은 원거리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고급 자료나 최신 연구 정보는 디지털화에 한계가 있으며, 물리적 자료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중요하다.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분관과 연계하여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이 전자도서관의 이점을 활용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물리적 도서관을 통해 자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을 통해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재정립해야 한다.

5.3 국가 지식정보체계 구축 및 역량 확대 측면

국가의 지식정보 역량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국회도서관 분관의 설립은 이러한 지식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의 지식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기능이 더욱 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도서관은 정보적, 사회적, 문화적 역할이 방대하여 모든 업무를 한 기관에서 충실히 수행하는 데 많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능의 분담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관의 설립이나 협력체계의 강화가 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5.4 지역균형발전의 지역별 지식거점 측면

국회도서관의 분관 설립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중요한 과제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서울과 부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시와 대전에도 분관이 있거나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호남 지역에는 분관이 없어 지역 주민들의 의회 정보 접근성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분관 설립은 지역 간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지식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서울과 부산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세종시와 대전시에 분관이 예정되어 있으나, 호남 지역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정보 접근성 차이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호남 지역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으로, 약 절반에 해당한다. 또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80년 후 대한민국 인구는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1,5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229개 시군구 중 221개가 소멸 고위험 지역에 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출산율이 0.92인 반면, 수도권은 0.72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도서관 분관의 지역적 균형 배치는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지식정보 인프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4개의 분관을 통해 지역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정보서비스의 접근성을 전국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도 국회도서관 분관을 추가로 건립하여 영호남 지역에 분포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회도서관의 주요 기능인 입법 지원, 연구 지원,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회도서관의 원문 구축률을 높여 온라인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도 지역 간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방안이다. 현재 단행본 도서의 디지털화 비율은 15.1%, 비도서 자료는 3.1%에 불과하다. 학위논문(50.7%)과 국내 학술지(56.5%)의 디지털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전체적 원문 구축률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도서관 분관의 지역적 균형 배치와 디지털화된 자료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국가 지식정보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

민의 알 권리와 지식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가 전반의 지식정보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5.5 국가 문헌자료 수장 능력 확대 및 분산 소장 측면

국회도서관은 국가 지식자원의 중심 기관으로서 다양한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총 4,280,057점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연평균 6.1%의 증가율을 보인다. 이러한 지속적인 자료 증가로 인해 수장 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국가문헌자료를 중앙에서만 보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효과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분산 소장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디지털 자료뿐만 아니라 인쇄본 자료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조선왕조실록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헌자료를 여러 지역에 분산 보관하는 것은 재난이나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분산 소장은 지역 간 지식정보의 균형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의 수장 능력을 확충하고 분산 소장을 통해 자료 보존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국가 지식자산의 보호와 지속적인 활용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료의 안전한 보관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의 균형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자료 보존을 위해 분산된 보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의회도서관은 자료 보존을 위해 포트 미드(Fort Meade) 자료

보존관과 팩커드 시청각자료보존센터(Packard Campus)라는 두 개의 자료 보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밀도 보존과 전문적 시청각 자료 보존을 담당하며, 주요 도서관들이 자료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도쿄 본관의 수장 공간 한계로 인해 2002년 교토에 간사이관을 설립하였다. 간사이관은 추가적인 자료 보존과 수장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기능하며, 본관의 수장 공간 한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국회도서관이 분관을 설립하여 수장 능력을 확충하고, 분산 소장을 통해 자료 보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국가 지식자산의 보호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5.6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료 분산 보존을 통한 재난관리 측면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자료는 현재의 활용뿐만 아니라 후대에 전승되어야 할 소중한 국가 기록문화유산이다. 조선왕조실록이 전쟁과 화재와 같은 재난 속에서도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복본을 만들어 전국의 여러 서고에 분산 보관했던 전통적 재난 대비 전략 덕분이다. 따라서, 원본 자료는 열화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서고에 보존되어야 하며, 만약의 재난 발생에 대비해 분산 보존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5.6.1 아날로그 자료의 분산 보존

아날로그 자료는 원본성과 물리적 형태를 보

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본 자료가 훼손되거나 소실될 경우 이를 복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한 분산 보존은 필수적이다. 주요 아날로그 자료를 전국의 여러 지역 서고에 분산 보관함으로써, 재난이 한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보관된 자료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이 여러 지역에 분산 보관되어 재난 속에서도 보존된 역사적 사례는, 현대 도서관에서도 아날로그 자료 보존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5.6.2 디지털 자료의 분산 보존

디지털 자료는 물리적 보존과는 다른 형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해킹, 시스템 장애, 서버 손상과 같은 디지털 재난은 자료의 완전한 소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손상에 대한 복원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자료는 서버에 저장되지만, 데이터 손상 및 유실에 대비해 여러 원격지 서버에 복제본을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일 서버에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장기 보존을 위해 디지털 자료의 복제본을 생성하여 여러 장소에 안전하게 분산 저장하는 것은 아날로그 자료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디지털 자료는 전자적 재난에 취약하기 때문에 다중 백업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5.7 국회의원의 정책수립을 위한 서비스 균형 제공 측면

국회도서관 분관의 설립은 국회의원의 정책수립을 위한 서비스 균형 제공 측면에서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도서관 이용에 있어 물리적 거리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의 의원들은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국회도서관의 자료와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 활동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도서관 분관이 지방에 설치된다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필요한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입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국회도서관의 기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효율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분관 설립은 본관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분관은 자료 보존, 사서 연수, 디지털 자료 관리 등 여러 기능을 분담하여 본관의 부담을 줄이고, 자료 수장 능력의 확대로 인해 장기적인 자료 관리와 분산 소장이 가능해진다. 특히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도쿄 본관 외에도 여러 지방 분관을 두어 자료의 보관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부족한 면적을 해결하고, 국회도서관의 장서 관리 및 분산 소장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국회도서관의 연면적은 40,938.73㎡로, 미국 의회도서관이나 영국 국립도서관과 비교해 부족한 공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도서관 분관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회도서관의 장기적 발전과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도서관 분관의 설립은 국회의원의 정책 수립을 위한 서비스 균형 제공 측면에서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국회도서관의 기능 강화와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8 연구도서관 기능의 확장을 통한 국회의 역량강화 측면

국가의 지식정보 역량은 현대 사회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입법 활동과 정책 결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화된 연구도서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특정 분야의 연구자료를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급 연구 성과를 도출하며, 정책 결정이나 산업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된 연구도서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도서관은 방대한 학위논문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간 부족과 자료 분류의 문제로 인해 자료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도서관을 구축하여 공간의 통합 활용을 촉진하면 정책적 타당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정보 활용 체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국에 분산된 전문자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연구도서관의 추가적인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 지식정보 역량 확대를 위한 필수적 과제로 여겨진다.

연구도서관의 구축은 정책 결정 및 학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전반의 지식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국회

도서관 분관의 설립은 지역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식과 문헌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회도서관은 국가 지식정보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지식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지식정보 공유 및 정책개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전략 자료의 공동 활용과 학술행사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회도서관이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국회도서관은 국민의 역량 개발에 도움을 주는 지식정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지식 접근성을 높이고,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도서관 기능의 확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국가 지식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국회도서관 분관의 기본방향과 목표

6.1 국회도서관 분관의 비전 및 기능 설정의 기본 방향

국회도서관 분관의 설립은 국가 지식정보체

계의 강화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분관의 비전은 입법 활동 지원, 지식정보의 지역균형발전, 디지털 정보 서비스 확대, 지식문화 확산, 그리고 학술 연구지원을 중심으로 설정된다. 이를 통해 국회도서관은 국회와 국민, 연구자를 연결하는 지식정보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다.

6.1.1 입법 활동 지원 강화

국회도서관 분관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정보, 정책자료 및 연구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6.1.2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분관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정보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도권 외 지역, 특히 영호남과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건립된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기능을 통합한 ‘라키비움(Larchiveum)’ 형태로 건립되어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6.1.3 디지털 정보 서비스 확대

국회도서관 분관은 디지털 자료의 구축과 전

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국회도서관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6.1.4 국민과의 소통 및 지식문화 확산

분관은 단순한 자료 보관소의 역할을 넘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는 지식문화 공간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민이 국회와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6.1.5 연구 및 학술 지원 강화

분관은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학술자료와 연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연구자들이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6.1.6 지방의회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방의회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입법 활동과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회도서관 분관이 지방의회의 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정부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6.1.7 자료 보존 및 안전 관리

국회도서관 분관은 국가적 자료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귀중한 도서 및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디지털화하여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자료 손실을 방지하고, 후세에 중요한 기록물을 전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과 기능 설정을 통해 국회도서관 분관은 국가 지식정보체계의 구축 및 역량 확대에 기여하며,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지식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6.2 국회도서관 분관의 비전 및 목표

6.2.1 국회도서관 분관의 사명

국회도서관 분관의 사명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과 연구자들에게 폭넓은 지식정보 접근을 제공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문화 자원과 의정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디지털화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데 있다.

국회의 입법 활동 지원 측면에서, 국회도서관 분관은 국회의원들이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에 필요한 고품질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가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국민과 연구자들에게는 지식정보에 대한 폭넓고 포괄적인 접근을 제공하여, 누구나 국회의 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회도서관 분관은 귀중한 지식문화 자원과 의정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국가적 유산을 후대에 전승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6.2.2 국회도서관 분관의 비전

국회도서관 분관의 비전은 국회 입법 활동의 지원과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지식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지식정보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회도서관 분관은 입법 지원과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지식정보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의회민주주의와 국가 지식역량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2.3 국회도서관 분관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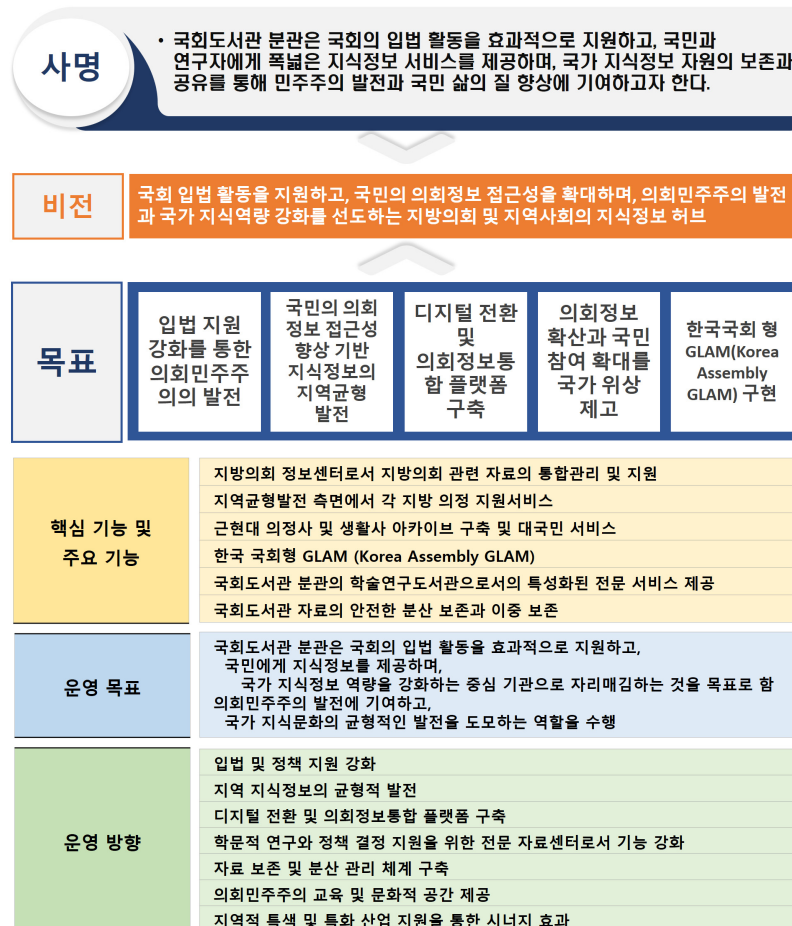
국회도서관 분관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입법 지원 강화를 통한 의회민주주의 발전이다. 국회도서관 분관은 입법 지원을 통해 의회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둘째, 국민의 의회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식정보의 지역 균형발전이다. 정보 접근성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셋째, 디지털 전환 및 의회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이다. 디지털 전환은 정보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국회도서관 분관은 이를 통해 정보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한다.

넷째, 의회정보 확산과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이다. 국회도서관 분관은 단순한 정보 제공처가 아닌, 의회정보를 확산하고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지식문화 허브로서 기능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형 국회 GLAM(Korea Assembly GLAM) 구현이다. 한국형 국회 GLAM은 단순히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을 넘어 지식·기록·문화가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한다. 전시관(Gallery), 도서관(Library), 기록관



〈그림 7〉 국회도서관의 사명, 비전, 목표

(Archives), 박물관(Museum)을 결합한 GLAM은 의회와 관련된 기록과 자료를 보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자와 국민에게 개방한다. GLAM은 국회의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의정사와 의회민주주의의 발자취를 국민과 공유하는 공공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는다. 이를 통해 국회의 역할을 역사적·문화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는 의회 중심의 문화공간을 구현할 것이다.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회도서관이 국가도서관 및 의회도서관으로서 국가 지식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분관 건립을 위한 기초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한 국회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 환경분석, 수요분석을 기반으로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환경변화로부터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 필요성을 보면, 국회도서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입법정보와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회도서관이자, 전 세계 지식정보를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국가도서관이다. 국가 지식정보의 중심으로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회부산도서관, 국회세종도서관(건립 예정),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대전, 건립 예정)를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법」 제22조 및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의장 소속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되고 있다. 그 역할은 국립도서관이자 의회도서관으로서, 학술 및 연구도서관으로서,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 공공도서관의 역할, 지식정보의 수집 및 보존, 장애인 정보서비스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지식정보사회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회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간 부족과 구조적 한계로 인해 기능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분관 설립이 필요하다.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의 기대효과는 첫째, 국가 지식정보 역량 확대, 둘째, 지역균형발전 및 지식 거점 형성, 셋째, 문헌자료 보존 및 재난관리 강화, 넷째, 정책 수립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 다섯째, 국민 서비스 및 의정 역사 아카이브 구축이다.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의 사회적 효과는 지역 균형발전, 지식 접근성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

지역 인프라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근현대 의정사 및 생활사 아카이브를 통한 문화 및 역사 보존, 국회의 기능을 지역사회와 더 긴밀히 연결시켜 국민 참여와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 아날로그 자료와 디지털 자료의 분산 보존을 통한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 보호 등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내외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평창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의회도서관은 주제별 자료를 수집하는 국립의학도서관, 국립농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은 도쿄 본관, 국제어린이도서관, 간사이관의 3관 체제로 운영되며, 영국의 국립도서관(BL)은 The National Newspaper Building (NNB), 문헌제공센터(DSC)의 3개관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은 5개의 일반도서관과 2개의 보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 지식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미래 대응 전략으로, 도서관은 연구의 중심으로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출판물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장서를 늘리고 기존 출판물을 디지털 텍스트화하여 검색 및 기계 학습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온·오프라인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며, 박물관 등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도서관은 소장자료와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선별하여 효율적인 검색 방법을 안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회도서관의 역할은 첫째, 국가 지식정보체계 구축 및 역량의 확대, 둘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지식정보 거점 마련, 셋째, 의회도서관으로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서비스 역량 강화 등이다.

위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의 필요성은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의 지식정보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저출생,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국회도서관의 지역 분관 건립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별 지식거점 구축 및 확산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국가 문헌자료의 수장 능력 확대 및 분산 소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국립도서관은 다양한 유형의 지역 분관 및 보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료의 특성화 기반 분산 보존을 통해 재난관리에 대비해야 한다. 여섯째, 국회의원의 정책수립을 위한 서비스 균형 제공이 필요하다. 일곱째, 연구도서관 기능의 확장을 통해 국회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국회도서관

관 분관의 비전 및 기능 설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도서관 분관의 비전은 입법 활동 지원, 지식정보의 지역균형발전, 디지털 정보서비스 확대, 지식문화 확산, 그리고 학술 연구지원에 중점을 둔다. 둘째, 국회도서관 분관은 국회와 국민, 그리고 연구자를 연결하는 지식정보의 허브로서 그 역할을 확고히 한다. 이러한 방향 설정을 통해 국회도서관 분관은 국가 지식정보 역량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며,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와 사례 분석, SWOT 분석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 목표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도출된 결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부족한 점이 연구의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나 정량적 데이터 활용을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이용자, 전문가, 정책 결정자 등)의 의견을 수집하고, 자료 증가율과 서고 공간 수요를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나 통계적 분석을 통해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구체적인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국가기록원. 출처: <https://www.archives.go.kr>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3). 2022년도 도서관 운영 통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출처: <https://www.libsta.go.kr>
- 국회도서관 (2015).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입지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국회도서관. 출처: <https://www.nanet.go.kr>
- 국회부산도서관. 출처: <https://busan.nanet.go.kr>
- 박옥남, 박희진 (2017). 국회도서관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라키비움 운영모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1), 201-226. <http://doi.org/10.4275/KSLIS.2017.51.1.201>
- 배경재, 서유진 (2018). 국회도서관 지방의회 정보서비스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5(2), 187-213. <http://doi.org/10.3743/KOSIM.2018.35.2.187>
- 서혜란, 초의수, 조명제 (2014).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 이상복, 박승진, 장인호, 고재민 (2016).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운영 기본계획수립. 국회사무처.
- 이승민, 고재민 (2020). 최첨단 디지털 기술 기반 지능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2분관 건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협회.
- 이지연, 전정현, 감미아, 서혜린, 안준범, 오혜영 (2018).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부산관) 세부 운영계획 연구: 최종 보고서. 국회도서관.
- 정은희, 차미경 (2020).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1), 311-335.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1.311>
- 조찬식, 김원진 (2012).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9(1), 95-113. <http://doi.org/10.3743/KOSIM.2012.29.1.095>
- 표순희, 차미경 (2016). 국회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적 이용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4), 121-142. <http://doi.org/10.4275/KSLIS.2016.50.4.121>
- Ames, S. & Lewis, S. (2020). Disrupting the library: digital scholarship and big data at the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Big Data & Society, 7.
- British Library. Available: <https://www.bl.uk>
- Çakmak, Tolga & Tırnavalı, Sercan (2020). Evaluation of reference services: an analysis of reference services at Turkish Grand National Assembly Library. Bilgi Dünyası, 21. <http://doi.org/10.15612/BD.2020.762>
- Library and Knowledge Services Directorate C. Available: <https://www.europarl.europa.eu>
- Library of Congress. Available: <https://www.loc.gov>

National Diet Library. Available: <https://ndl.go.jp>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Available: <https://www.kb.nl/en/about-us>

Zhu, Q. & Xie, X. (2022). Users' needs and expectations of immersive learning spaces in an academic library: a survey.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55, 371-38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e, Kyung-Jae & Suh, Yoo Jin (2018). The local assembly information services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2), 187-213. <http://doi.org/10.3743/KOSIM.2018.35.2.187>

Cho, Chan Sik & Kim, Won-Jin (2012). A study on the user satisfaction with the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s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1), 95-113. <http://doi.org/10.3743/KOSIM.2012.29.1.095>

Chung, EunHee & Cha, Mi-Kyeong (2020). A study on improving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 in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the Republic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1), 311-335.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1.311>

Lee, Ji Yeon, Jeon, Jeong Hyeon, Gam, MiA, Seo, Hye Ran, Ahn, Jun Byeom, & Oh, Hye Yeong (2018). Detailed Operation Plan for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rchives (Busan branch): Final Report. National Assembly Library.

Lee, Sang Bok, Kwak, Seung Jin, Jang, In-Ho, & Ko, Jae Min (2016). Master Plan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rchives.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Lee, Seung Min & Ko, Jae Min (2020).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Second Branch to Enhance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Cutting-edge Digital Technology. Korean Library Association.

National Assembly Busan Library. Available: <https://busan.nanet.go.kr>

National Assembly Library (2015).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nd locating branches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Relations.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Korea. Available: <https://www.nanet.go.kr>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2023). 2022 Library Operation Statistics.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Available: <https://www.libsta.go.kr>

- Park, Oknam & Park, Hee Jin (2017). A study for exhibition and education programs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focusing on larchiveum mod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1), 201-226.
<http://doi.org/10.4275/KSLIS.2017.51.1.201>
- Pyo, Soonhee & Cha, Mi-Kyeong (2016). The study on the measuring the economic use value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4), 121-142. <http://doi.org/10.4275/KSLIS.2016.50.4.121>
- Seo, Hye Ran, Cho, Eui Soo, & Cho, Myung Jae (2014). A Study on the Plan for Establishing Branches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National Assembly Library.

